

문제 1

제시문 (나)에 나타난 언어 현상들은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언어형성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존재하던 언어의 문법성을 파괴하고 뜻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신조어는 축약과 자음만을 표기하는 성격을 보인다. 그 예로는 짱나, 즐겜 강추 따위와 ㅋㅋㅋㅋ, ㅇㅇ 등이 있다.

그리고 문법성은 지키되 기존에 쓰이던 언어들을 조합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신조어는 새로운 뜻으로 파생되는 성격을 보인다. 이에 대한 예로는 손주병, 월급 루팡, 김치녀 따위가 있다.

제시문 (가-1)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규범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입장에서 문법성을 파괴한 신조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에 지켜왔던 일종의 사회 규범인 국어 문법을 깨트린 것으로, 그 결과로 인해 언어 체계가 불안정해지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법성을 고수하고 의미만 새로워진 신조어는 기존의 문법 규범을 보존한 것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제시문 (가-2)에서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깨트리는 일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가-1)의 입장과는 달리 이 입장에서 문법성을 파괴한 신조어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존의 체계를 깨트림으로써 그동안 획일화 된 사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법성을 지키고 의미만 변화된 신조어도 비난 받을 여지가 없다. 비록 기존의 규범을 깨트리지 않는 않지만 기존의 용례와 달리 참신한 뜻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이를 일탈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2

사회 규범은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회의 분위기가 그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동이 이것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제시문 (다)의 세 국가(한국, 네덜란드,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제시문 (다)에서는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사법 시험 지원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A국가에서는 사법 시험 지원율의 현황이 성별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여성의 비율 또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띤다.

하지만 2002년과 2003년, 2005년과 2006년 사이 등에서 전체 지원율이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 또한 2002년과 2003년과 같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B국가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녀의 성비가 대략 6:4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먼저 사회 규범이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A국가의 이러한 현상은 제시문 (다)의 네덜란드와 미국에 대응 된다. 사법시험 지원율의 등락은 네덜란드와 미국이 각각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인식이 변화한 것과 결부시켜 A국가 내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인한 사회 규범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의 증가는 사회 규범의 개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국가와 대비되는 B의 현상은 한국에 대응된다. B국가의 지원율의 불변은 사회 규범의 변화 없이 보수적 성격을 고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B국가에서 1999년과 2008년 사이 기간의 변화 추이를 명시하지 않고, 구체적 인원 수를 표기하지 않은 대신 비율로 나타낸 점에서 비교에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제시문 (다)에서는 이렇게 세부적 요소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타당하다.